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모든 물리법칙은 관측하는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같다. 이것은 상대성이론의 핵심이다. 즉 정지한 상태의 관찰자건, 등속 혹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상태의 관찰자건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주 어디에서나 물리법칙은 바뀌지 않으므로 상대성이론이라 해서 절대성에 가까운 보편적인 원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관측된 계에 따라서 길이와 시간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 관측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 물리법칙이 달라지거나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이라고 오해

상대성이론은 상대적인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위 연휴 중 지인이 제주를 방문했다. 이제 스물을 넘긴 자녀들이 있어서인지 월경과 예월 해안도로의 카페를 찾겠다고 했다. 갑자기 제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제주도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제주도는 카페 천국이 되고야 말 것인가. 몇 해 전 친구가 소개한 이탈리아인 디자이너 말이 귀에 쟁쟁해서 씹숯했다. 그 이탈리아인이 성읍민속마을을 방문하고 탄성을 지르며 감탄했었는데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를 그곳에서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제주를 찾는 이들이 성읍민속마을을 핫 플레이스로 생각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18, 19세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방향성은 미래지향적이다.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제주도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산들이 가치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는 하지만 시대에 따라 그 가치 기준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플레카드를 내걸고 외치는 말들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가 아닌가. 왜 이 말들이 활자로만, 소리로만 무성하고 실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만약 제주를 찾는 이들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무관하게 놀이터 정도로 여기며 찾는다고 해도 이는 모두 우리 제주의 책임이다.

박리다매(薄利多賣)를 경기 침체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상품의 가치 하락이고 나머지는 노동과 간접비용의 증가이다. 결국 제살을 깎아먹는 꼴이다. 지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이상하다며 렌터카 하루 임대료가 100원이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나고 물어왔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지만 부끄러워서 그 실상을 알릴 줄 수가 없었다. 최근 해수욕장 잔디밭이 캠핑장으로 사용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제기됐다. 이 문제도 결국은 제주의 자산인 환경과 생태를 싸게 팔아먹은 결과에 불과하다.

모든 물리법칙은 관측하는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같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제주도 환경과 생태의 청정과 자연스러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절대적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성이론으로 말하자면 '환경과 생태'는 'm(물체의 질량)'이기도 하면서 'E(에너지)'가 되는 셈이다. 제주도의 방향성에서 '환경과 생태'를 예외로 하거나 상대적인 관점으로 접어들 수가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굴지심과 자기비하로 우리 제주도가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후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사설

‘제주형 뉴딜’, 치밀한 실천 전략에 달렸다

‘그린뉴딜’을 핵심으로 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 총 6조1000억원을 들여 4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주도할 ‘그린뉴딜 선도지역’ 구축이 큰 축입니다. ‘제주형 뉴딜’은 이외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 핵심과제 및 중점과제로 짜여졌습니다.

주목할 과제는 ‘그린뉴딜 선도지역’의 내용 중 전력거래 자유화, 내연차량 신규등록 제한입니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전의 독점을 깨고, 도민에 의한 청정 전력생산과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계획도 눈에 띕니다. 현재 도내 전기차 등록 2만 대를 넘어 전국의 18%를 차지할 만큼 단기간 성과를 보인 상태에서 더 확장성있는 전기

차정책은 절실합니다.  
‘제주형 뉴딜’의 성공은 향후 치밀한 실천 전략에 달렸습니다. 중앙 부처를 상대로 타당한 논리와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총력전도 필수입니다. 벌써부터 정부와 한전을 비롯한 관련 산업과의 이해충돌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청사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정부 국회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의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을 지향하는 현실을 잘 봐야 합니다. 제주형 뉴딜의 핵심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높더라도 치열한 준비로 도전해야 마땅합니다.  
제주형 뉴딜계획이 제주의 재도약과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타 지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번져 우려된다

다른 지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ASF가 발병한 것은 올들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야생 멧돼지를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ASF까지 발생해 걱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잠잠했던 ASF가 1년 만에 재발해 양돈농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화천군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후 인근 2km 가량 떨어진 다른 양돈농장에서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ASF 발생농장과 인근 10km 이내 양돈농장에 사육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ASF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심각단계의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타 시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불법 반입

가족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알다시피 ASF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입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발병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무섭듯이 ASF도 일단 발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 강화 등 ASF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마당

설령탕에서 시작되는 부정부패



현 민 재  
서귀포시 호동동주민센터

드라마 ‘비밀의 숲’을 보면 청렴한 검사가 어떻게 부패한 검사로 몰락하는지 잘 그려져 있다. 청렴하게 살기 위해 뇌물을 거절하고 지인이 부탁한 식사도 피하는 청렴한 검사를 타락시킨 것은 10억, 100억도 아닌 몇 천 원짜리 설령탕이었다.

모두가 처음부터 부정부패한 공무원이 될 생각으로 공직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패한 공무원이 되는 것일까. 부패한 공무원을 만드는 것은 큰 뇌물이 아니다. 돈이 클수록 겁이 나고 거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쉽게 생긴다. 하지만 설령탕처럼 민원인과 작은 식사 자리는 거부하기 힘들다. 그렇게 시작된 민원인과 관계는 자신이 정해놓은 청렴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낮아지게 만

들고, 자신이 생각한 청렴한 공직자와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작은 청탁을 피해 청렴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악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있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원래 의미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악마가 숨어 있기 때문에 청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 청렴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견물생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절제해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눈앞에 물건이 있으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성을 통해 잘 감시하여 견물생심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작은 일에서부터 청렴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젊은 시절 지키고자 했던 청렴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후에 공직생활을 마칠 때 아쉽 바다 햇살처럼 잔잔하게 빛이 났으면 한다.

뉴스-in

대권 주자 3명 나란히 한 무대에…

청와대서 정책 발표 경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여당 대권 주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한 자리에서 정책 발표 경쟁을 벌여 눈길.

이날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별 뉴딜 정책 발표를 위해 원희룡·김경수·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무대에 오르며 주목.

이날 무대가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 3명의 발표 내용과 화법, 준비성 등이 비교되는 자리 가 됐다든 평가.

부미현기자

이들은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정신청서를 제출.

이들은 위 의원이 지난 3월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제주4·3특별법이 개정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은지기자

무선망 노후 지적에 “아나”

○…제주 학교 교실의 ‘무선 공유기(AP)’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 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박.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은 제주 학교 교실이 2015년 이전 설치돼 교체 대상을 뜻하는 ‘내용연수 경과’ 비율이 7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발표.

도교육청은 “해당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 구축한 1227실을 누락, 실제 노후화 비율은 39%로 낮다”고 해명. 송은범기자

위 의원 불기소에 제정신청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자가 위성군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주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

부 고

현창선(前 서귀포화생문화원)·현창훈(제주도청 교통정책과) 어머니 군위 오씨 형옥(마리아·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12일 20시 숙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14일(수)  
▶일포장소: 남원을 남원리 의례회관  
▶장례미사: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 남원성당  
▶장 지: 남원을 수망리 선영

아 들 현창선(아래) 손 자 현용호(오래)  
창훈(아래) 용주(오래)  
창성(아래) 용현(오래)  
딸 현옥선(아래) 용준(아래)  
옥렬(아래) 손 너 현혜숙(아래)  
옥순(아래) 미주(아래)  
며느리 고국희(아래) 외손자 이용기(아래)  
김미아 양진수(아래)  
신효경 한재욱(아래)  
사 위 이창은(아래) 양희수(아래)  
양경필(아래) 외손녀 이현정(아래)  
이소정(아래)  
양혜수(아래)

※ 연락처 : 현창선 010-5691-0042  
현창훈 010-2699-4465

부 고

고주봉 아버지 제주고공 창흥(향년 90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13일 13시 20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14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고 주 봉  
성 봉 며느리 오은숙  
딸 고 숙 희  
복 희 사 위 김 준 오  
은 희 박 태 우  
옥 희 이 병 호

※ 연락처 : 고성봉 010-4670-5048  
고은희 010-8660-7312  
김준오 010-3697-115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이분(엘리사벳·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4일

아 들 김 충 현(엘리스)  
며느리 임 순 덕(소화테레사)  
딸 김 유 현(마리아)  
손 자 김 강 산(요셉)  
손 너 김 나 래(에모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은화(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4일

아 들 부 정 유 며느리 현 애 자  
정 운 고수연  
딸 부 영 자 사 위 박정함  
영 숙 박주열  
정 자 진성복

방의·신들림  
중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방의전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방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마로 47 3층(연동)

064)746-0789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